

한국 언론에 나타난 러시아 국가 이미지 연구 : 러시아 관련 언론 보도 빅데이터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세원 부경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의 해인 2008년부터 한·러 수교 30주년의 해였던 2020년에 발행된 국내 중앙지 11개의 러시아 관련 보도기사를 빅데이터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여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미지 및 인식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국내 언론 매체에서 제시하는 러시아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보수신문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강국으로, 진보신문은 부정적으로 보도하나, 필요한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와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는 심도 있는 분석에 근거한 기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국민의 러시아 관련 인식 척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러한 인지 불일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러시아, 빅데이터, 이미지이론, 국제사회인식, 국제보도

I. 서론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30일 양국 간 수교 이후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한·러 관계의 발전은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신범식 2019, 136). 첫 번째 단계(1990~1998)는 모스크바 공동선언(1994.6)을 통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이다(신범식 2019, 136). 이 기간 동안 양측은 국교를 수립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 및 조정하였다. 양측은 1992년 기본관계조약을 맺었고, 1994년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1997년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 과학, 기술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정례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김덕주 2019). 그러나 냉전 기간 동안 불안한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1996년 4자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급속 냉각과 양국의 경제 위기를 들 수 있다(신범식 2019). 해당기간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1998년 7월에 한·러 양측의 외교관 맞추방이었다(김덕주 2019). 두 번째 단계(1999~2002)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언급된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의 지속 및 강화로 규정될 수 있다(신범식 2019). 이 기간 동안 양측 관계의 소강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상회담 재개(1999. 5월)와 한·러 관계 10주년(2000.9) 관련 행사들을 통해 양측 관계 유지 관련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다(김덕주 2019). 세 번째 단계(2003~2008)에서 양측은 기존에 구축해둔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였다(신범식 2019). 이 기간에 가장 큰 성과는 2004년 9월에 수립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2005년 11월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김덕주 2019). 2008년부터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전략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2008년 9월 ‘전략적(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여겨진다(김덕주 2019). 문재인 정부 출범 이

후 한국은 러시아와 포괄적이고 다각도적인 접근을 통해 관계를 돈독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직후 대통령 특사단을 러시아에 보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에 호응해 신북방 정책을 내놓았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8). 2017년에는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양측의 실질적 관계 발전과 연결성을 심화시킬 '9개의 다리' 전략을 발표했다(청와대 n.d.). 여기서 의미하는 9개의 다리는 철도, 전력, 북극항로, 항만, 수산, 가스, 조선, 농업, 산업단지 조성을 의미한다(청와대 n.d.).

지난 30년간 한국과 러시아는 냉전으로 구축된 적대적인 관계로 시작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양자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과 더불어 한국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인식 또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관계에서 일정한 국면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포착됐다(최우익 2017). 그러나 한국에게 있어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국제사회 협력 파트너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이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세대별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기성세대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실익에 따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젊은 세대의 경우는 관심도가 낮아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최우익 2017).

이러한 세대간 그리고 정부와 언론 사이의 대(對) 러시아 인식의 불일치 현상에 근거한 입장과 그 원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특정 국가의 인식이나 이미지가 구성되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론보도이다(이병종 2012). 언론매체는 대중이 해외의 국가 및 지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존할 만한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이다. 언론매체는 사회의 정보교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며, 언론매체에서 발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이 주고받으면서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Mermin 1999). 또한 엔트만(Entman)(2003)은 이러한 정보교환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프레임 구성을 통한 영향 관계를 폭포수 모형(Cascading Activation Model)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언론매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연구에서 언론매체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는 최양호·김봉철(2005)이 수행한 한국 언론의 사설 내용 분석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에서의 러시아 국가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언론매체의 보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중앙지 11개를 선정하여 한국 언론이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의 해인 2008년부터 한-러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러시아를 어떻게 보도하였고,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했는지 빅데이터 내용 분석을 통해 거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장은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보울딩(Boulding)과 허먼(Herrmann)의 국제정치적 맥락에서의 ‘이미지 이론’과 국내 러시아 인식 관련 선행 연구 동향을 다룬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방법론에 관한 소개를 하고 4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물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은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국제정치학적 맥락에서의 이미지이론

보울딩(Boulding 1956)은 국제사회의 특정 주체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기타 행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복잡다단한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행위자들은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절대적인 지식을 구축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 특정 국가적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 인식의 일부인 ‘이미지’는 사회를 조성하고, 그 사회도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생산하면서 쌍방향으

로 영향을 주고받는다(Boulding 1956, 64). 어떤 사회적 집단의 이미지가 사회로부터 형성된 후, 다른 사회에 전달되어 구성원들의 인식 내에 유지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울딩(Boulding)은 국가의 이미지가 사람들의 주관적인 지식을 좌우하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됨을 강조했다(Boulding 1956, 109-110). 다시 말하면 특정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실체를 통해 나타나며, 이러한 이미지가 타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극대화되는 경우 국제 분쟁의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하게 된다. 보울딩(Boulding 1956)은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응 차원의 정책(군비 경쟁 및 안보 딜레마)을 추진한 것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즉, 특정한 국가적 행위자가 다른 국가들의 이미지를 통해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양립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한 국가의 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 인지’의 모음이며, 자신이 속한 국가의 긍정적인 인식과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와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Herrmann and Fischerkeller 1995). 타국에 대한 이미지는 타국과의 양립 가능성, 상대적 국력 그리고 문화적 지위를 통해 결정되며, 이에 따른 외교정책도 형성된다(Herrmann and Fischerkeller 1995, 425-427). 허먼(Herrmann)과 피셔켈러(Fischerkeller)의 국제정치학 맥락에 근거한 이미지 이론적 접근은 특정 국가에 대해 자칫하면 모호하게 가질 수 있는 인식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국내 러시아 인식 관련 선행연구 고찰

한국인의 러시아 관련 국가 이미지 혹은 인식 조사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최양호·김봉철(2005)은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 재수립 이후 발행된 한국 신문의 러시아 관련 사설 내용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강봉구(2009)는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러

시아의 국가 이미지 혹은 인식을 한국 내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를 활용하여 탐구하였다. 방교영(2011)은 브랜드 이론과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적 토대인 다섯 가지 범주(우정, 순종성, 남성성, 강인성, 집단성)를 바탕으로 한국의 20~30대 여성이 바라보는 러시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이후 방교영(2012)은 20~30대 한국 남성이 지닌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를 후속 연구로 발표했다. 최우익(2017)은 2017년 7월 하반기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 국민(러시아 국민 1,200명,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러시아간 상호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세대별 인식을 연구하였다. 민경하·김세일(2019)은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를 조사했다.

한국의 러시아 이미지 혹은 인식과 관련된 지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소련의 붕괴 이전이나 이후의 세대 전체가 인식하는 러시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고, 냉전 당시 소비에트 연합의 공산주의와 관련된 이념적 유산이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냉전 이후의 젊은 세대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기성세대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며, 외신이나 국내 언론에 나타난 러시아 관련 보도가 그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국가 이미지나 인식 연구는 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원인 언론매체에 대한 분석은 최양호·김봉철(2005)의 연구 이후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참조).

<표 1> 러시아 국가이미지 선행연구 정리 도표

저자(연도)	연구대상	연구결과 및 결론
최양호·김봉철 (2005)	한국주요신문(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러시아 관련 사설 (기간 1990~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외교 분야의 사설이 주를 이루었고 부정적으로 묘사됨. ▪ 최근으로 갈수록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함.
강봉구(2009)	한국언론의 보도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시기 적성국가의 이미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는 인식이 존재 ▪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나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함.
방교영 (2011·2012)	(2011) 한국의 20~30대 여성 (2012) 한국의 20~30대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시대 이후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됨 ▪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최우익(2017)	한국국민의 러시아 인식 관련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세대로 갈수록 러시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척도가 낮음. ▪ 러시아의 인식적 비중이 약해짐. ▪ 양자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민경하·김세일 (2019)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이미지 혹은 인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부정적으로 인식 ▪ 친 서방성향을 띠는 한국 언론의 태도에 근거한 러시아 보도를 통해 부정적 인식 구축 ▪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양자관계의 인식적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음

출처: 필자 정리

본 연구는 선행 연구 중 2005년 이후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내언론매체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20년 까지 발간되었던 러시아 관련기사들을 분석하여 한국 언론에 내재되어 있는 러시아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기존 미디어 내용분석과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반한 분석 방법론을 통해 연구의 차별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빅데이터 내용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탐지하고 이를 통해 가치 있는 통찰력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Sivarajah et al. 2017). 위에서 언급했던 이미지 이론에서 보울딩(Boulding 1956)

이 언급한 ‘국제사회의 한 주체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지식의 모음’인 국가 이미지를 탐구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 내용 분석은 방대한 정보를 다루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이는 허먼(Herrmann)과 피셔켈러(Fischerkeller 1995)가 정의 내린 ‘특정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 인지’를 탐구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 내용 분석이 인식의 구조패턴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북방 외교의 맥락 내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한국 언론에 현실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불일치하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對)러시아 외교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네 가지 차별성을 띤다. 첫째, 본 연구는 언론보도의 내용분석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러시아 관련 국내 신문 사설을 다룬 것과 대조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중앙지 11건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도된 러시아 관련 신문기사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위의 접근을 통해 한국 언론의 러시아 보도 내용을 한 눈으로 조망할 수 있고, 보도 내용에 내재되어 있는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살펴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최근 국내신문의 러시아 보도기사를 활용해 분석하여, 가장 최근 러시아 보도행태를 살펴볼 수 있고 이는 본 연구의 시의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질적 연구와 설문조사에 바탕한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도입해 러시아 국가 이미지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국내 언론의 정파성에 근거해 러시아가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언론의 정파성에 근거한 러시아의 인식차이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데이터 및 방법론: 언론보도 빅데이터 내용분석

1. 연구 데이터 개요

이 연구는 국내 중앙지 11개(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다루었던 러시아 관련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수집 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개년을 대상으로 잡았다. 본 연구는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 플랫폼을 활용해 분석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선일보는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기사를 공개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기사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분석 기간은 신범식(2019)의 연구에서 제시한 한-러 관계의 발전 양상과 특징을 고려해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추진시기’(2008.1~2015.12)와 ‘포괄적 전략 협력의 모색시기’(2016.01~2020.12)로 2단계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이미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과 언론의 이념성에 따라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하여, 러시아의 국가이미지의 시대적 변화와 언론매체의 정파성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접근 트랙은 위에 언급한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추진시기’와 ‘포괄적 전략 협력의 모색시기’를 거쳐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접근 트랙은 언론의 이념성 즉 보수와 진보성향에 따른 러시아의 보도 패턴을 워드클라우드와 키워드 언급횟수 비교를 통해 보도 패턴의 차이점을 다루고자 한다. 본 트랙의 분석대상은 수집된 종합일간지중 언론의 이념성이 도드라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설정하였다(박주현 2020). 신문의 정파성 혹은 이념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가운데 위의 신문들은 각자(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표적 보수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표적 진보신문) 대표성이 명확하게 구

분 지어져 왔다(박기수 2011; 박주현 2020). 따라서 분류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연구 데이터와 투 트랙 접근법을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분석기간	분석대상
Track 1 (언론매체에 나타난 러시아 국가 이미지 변화추이관찰)	(1기) 2008.1~2015.12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추진시기'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2기) 2016.01~2020.12 '포괄적 전략 협력의 모색시기'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2018년 이후 분석가능)
Track 2 (언론매체의 이념성에 따른 러시아 국가 이미지 관찰)	2018.01~2020.12	(보수) 조선일보, 중앙일보
		(진보) 한겨레, 경향신문

출처: 필자 작성

2. 연구 방법론 소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뉴스 검색 서비스이며 빅데이터 플랫폼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는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뉴스검색서비스인 카인즈(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및 기타 방송사 등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로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추가 접목시켜서 발전시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다(빅카인즈 n.d).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54개의 언론

사에서 발행한 총 7천만 건의 뉴스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를 검색해서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다(빅카인즈 n.d.). 빅카인즈 플랫폼은 비정형화되어 있는 텍스트 정보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 응용 및 활용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빅카인즈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빅카인즈를 활용한 뉴스 분석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뉴스검색’ 기능은 크게 ‘검색조건’ (기간, 언론사, 통합분류, 사건, 사고 분류 가능), ‘상세검색’ (검색어 처리방식, 범위, 기고자명 검색 등 검색 결과를 줄이는 기능), ‘나의 검색식’ (분석자가 직접 검색 조건을 구성하여 저장 후 활용 가능)으로 나뉜다(빅카인즈 n.d.). 두 번째 단계인 ‘검색결과’ 기능을 통해 결과 범위를 필터링하며, 기본 검색의 범위를 특정화할 수 있으며, 검색 조건과 필터링 조건을 저장할 수 있다. 이에 추가로 관계도 분석,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 등의 기능을 활용해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다(빅카인즈 n.d.). 마지막 기능인 ‘분석 결과 및 시각화’를 통해 분석자는 뉴스의 메타정보 및 분석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후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R, Python, SPSS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추가 분석이 가능하다(빅카인즈 n.d.).

상기한 관계도,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에 대한 시각화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빅 데이터 방법론 적용을 통해 한국의 러시아 이미지 혹은 언론매체의 인식을 새로운 접근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관계도 분석을 활용해 러시아와 관련된 주요 인물, 기관, 장소와 키워드를 분석할 수 있으며, 개체명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연결 관계를 통해 정보의 흐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통해 러시아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의 빈도와 중요도를 시계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세로나 가로 막대로 표시 가능). 또한 토픽모델링 기법에 근거한 키워드의 언급 횟수와 가중치 분석이 가능하여, 어떠한 키워드가 언론의 내용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영향력이 큰지 파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관어 분석을 활용해 러시

아와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를 ‘연관관계’ 기능을 활용해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표출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기점을 국내 언론이 국제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빅데이터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인식 척도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향후 한국의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관계 발전에 중요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것을 기대한다.

IV. 결과

1. Track 1: 언론매체에 나타난 러시아 국가이미지 변화추이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다음의 순서로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 신문 중 중앙지 11건의 러시아 관련 기사의 분야별 보도건 수량을 검토한 후 키워드 네트워크와 그래프의 결과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키워드의 단어 분류 기법에 근거한 중요한 단어별 토픽을 바탕으로 제시된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서 국내 신문의 러시아 보도에 따른 중요한 키워드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기간 수집된 기사의 수는 총 228,386건이고, 연별 평균 보도건 수는 17,568.15건이다. 1기 기간 (2008년 1월~2015년 12월) 동안 총 기사 수는 128,677건이고, 연별 평균 보도건 수는 16,084.63건이다. 2기 기간 (2016년 1월~2020년 12월) 동안 총 기사 수는 99,709건이고 연도별 평균 보도건 수는 19,941.8건으로 1기보다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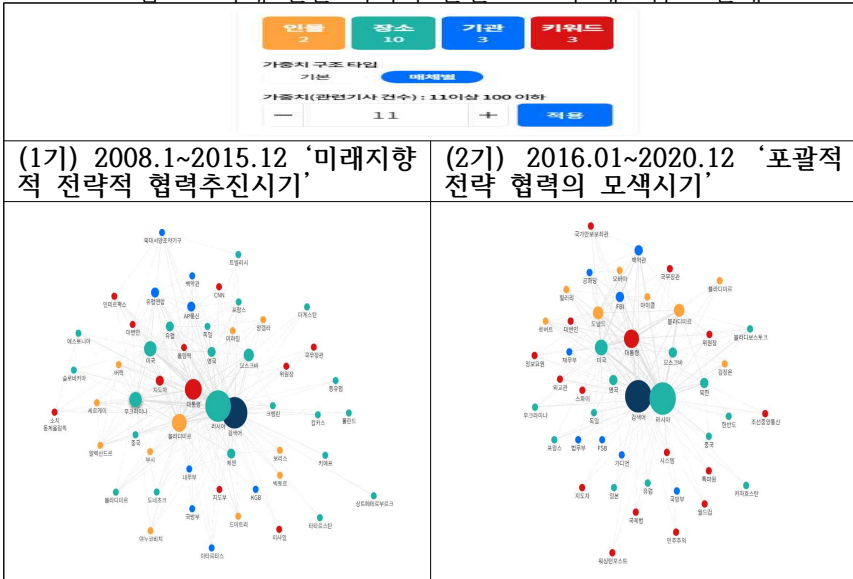
1기 기간 중 한국 신문은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사건(동아일보 2014/08/10; 2014/08/17)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으며 2014년 보도건수를 끌어올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합병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 국면(세계일보 2014/03/31; 동아일보 2014/03/31)은 한국 중앙지의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사건이었다. 2기 기간의 첫 해인 2016년은 한국 중앙지의 러시아 보도건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2016년 말 미국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한 의혹이 2017년 이후부터 한국 중앙지의 시선을 끌게 되면서 보도 건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8년은 한국 중앙지가 러시아를 가장 많이 보도한 한 해로, 당시 주목 받았던 이슈들은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한겨레 2018/06/22; 경향신문 2018/06/2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도중 러시아의 날(День России, 6월 12일) 기념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 발송(국민일보 2018/06/12), 2018년 7월에 헬싱키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국민일보 2018/06/29; 서울신문 2018/06/29)과 같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영향력이 큰 주요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다. 2019년은 2017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이후 미국 법무부의 로버트 무러 특검팀의 수사종결 보고서 결과발표(조선일보 2019/04/19; 동아일보 2019/04/19) 또한 한국 중앙지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 러시아 보도와 관련된 인물, 장소, 기관, 기타 키워드를 네트워크 매핑(Mapping)을 통해 국내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러시아 관련 키워드를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의 가중치와 연관성에 따라 노드(네트워크상의 점을 의미)의 크기가 비례 되어 나타난다. 인물 관련 키워드는 특히 2기 네트워크 관계도 에서 푸틴을 나타내는 ‘블라디미르’와 트럼프를 나타내는 ‘도날드’가 중요한 노드(node)로 나타났다. 1기에 푸틴과 트럼프와의 연결 관계는 주목받지 않았지만 2기에서 서로 근거리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키워드에서는 1기와 2기에 다른 연결양상을 보여주었는데, 1기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노드 크기가 컸으며, 연결성 또한 확인되었다. 하지만, 2기에서는 ‘러시아’와 ‘미국’의 노드 크기와 연결성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관련 기관 키워드 또한 1기와 2기에 차이를 보였는데, 1기에서는 ‘AP 통신’과 ‘유럽연합’이 중요한 노드로 부상하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으로 간주한다. 2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 ‘FBI’, ‘백악관’, ‘공화당’이 중요한 노드로 나타났다. 위의 키워드들을 확인한 결과 각각의 시기에 주요 뉴스이슈에 어떠한 키워드가 주

목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그림 1> 국내 신문 러시아 관련 보도의 네트워크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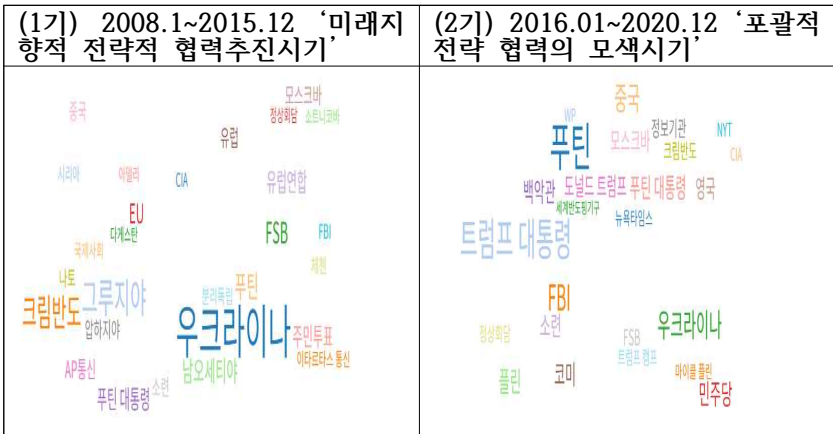
출처: 빅카인즈(n.d.)에서 필자 제작

키워드별 가중치 순으로 살펴보면 1기에서는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크림반도’, ‘푸틴’, ‘FSB’가 상위 5개 주요 키워드로 확인되었으며, 2기에서는 ‘중국’, ‘우크라이나’, ‘푸틴’, ‘FBI’, ‘모스크바’ 순으로 확인되었다.¹⁾ 키워드별 언급 횟수 순으로 살펴보면 1기에서는 ‘우크라이나’, ‘푸틴’, ‘그루지야’, ‘유럽’, ‘크림반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2기에서는 ‘푸틴’, ‘중국’, ‘우크라이나’, ‘소련’, ‘소수민족’ 순으로 나타났다. 1기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사건과 2008년 그루지야 사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가중치나 언급횟수 또한 높게 나타났다. 2기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중국이 또한 가중치적인 측면에서나 언급 횟수

1) 여기서 FSB는 러시아 연방보안국(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СБ)를 뜻하며 1995년 엘친 대통령이 개편하기 전 기구의 이전 명칭은 KGB(Комит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ГБ))였다.

측면에서나 높게 나타났다. 1기와 2기를 연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국가이미지를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2기에는 부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성에 대한 이슈도 또한 국가이미지 결정요인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위의 키워드의 값을 반영한 결과를 아래의 워드 클라우드<그림 2>로 도출하였다.

<그림 2> 국내 신문 러시아 관련 보도의 워드 클라우드



출처: 빅카인즈(n.d.)에서 필자 제작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기 기간 중 가장 크게 나타난 키워드는 왼쪽 아래에 있는 ‘우크라이나’이었고, 2기 기간 중 가장 크게 돋보이는 키워드는 왼쪽 위의 ‘푸틴’과 해당 키워드의 왼쪽 아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한국 신문은 1기 기간 동안 러시아가 그루지야(경향신문 2008/08/12)와 우크라이나(서울신문 2014/03/19)를 침공하는 해당 지역의 군사강국으로 묘사하였으며 유럽지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국제사회에 군사적 영향력과 호전성이 한국 중앙지 기사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2기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러시아가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의혹에 관한 스캔들을 보도하였으며 주로 확

인된 이슈는 FBI 개입 여부(세계일보 2020/09/20), 러시아발 댓글부대의 가짜 SNS 계정(조선일보 2020/11/26; 중앙일보 2020/12/23),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한 달을 남겨두고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와 미국 대선 관련 러시아 스캔들 관련자들의 무더기 사면이었다(조선일보 2020/11/26; 중앙일보 2020/12/23). 위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는 미국의 대선과 같은 주요한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국가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를 접하는 독자는 러시아를 미국과 그 힘을 겨루는 강국의 이미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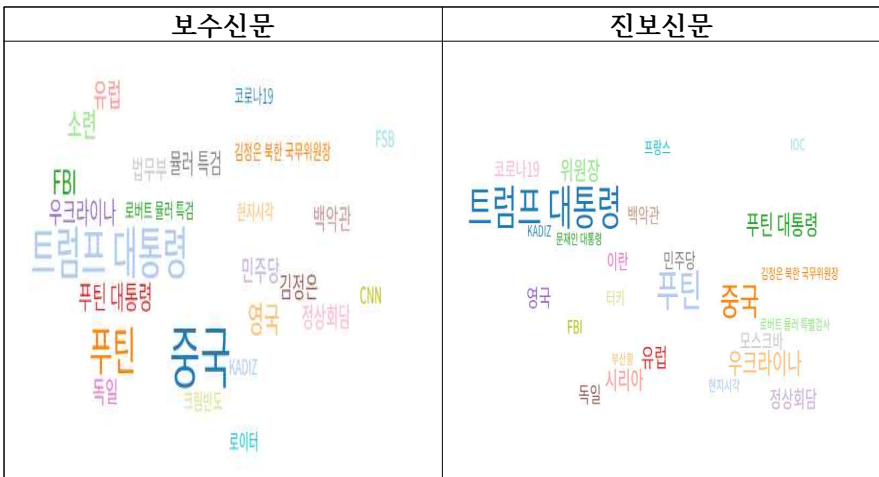
위 분석 기간 1기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이미지는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 혹은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의 청사진과는 상당부분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매체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러시아의 이미지와 한국이 추구하는 대(對)러시아 관계의 추구하는 방향과 충돌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지지나 관심이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2기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이미지는 1기와는 좀 다르게 일부 대조적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신문은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협력의 적절한 동반자 국가로 묘사하는 반면 다른 신문들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의 이미지가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언론매체의 이념성에 따라 러시아가 어떻게 국가이미지가 생성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Track 2: 언론매체의 이념성에 따른 러시아 국가 이미지 관찰

위에서 언급한 언론매체가 지닌 이념성에 따라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언론매체의 이념성에 근거하여 자료를 분류 후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접근법은 한국 중앙지 중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확실한 4개의 신문사(보수: 조선, 동아, 진보: 한겨레)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료 수집이 가능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개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보수 신문(2018년 4948건, 2019년 4665건, 2020년 3707건)과 진보 신문(2018년 4424건, 2019년 2709건, 2020년 1975건) 모두 러시아 관련 뉴스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신문이 진보 신문보다 러시아를 뉴스 보도의 대상으로 더 많이 다루고 있었으며, 진보 신문의 러시아 보도량의 감소세도 보수신문보다 가파르게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 보도는 보수 신문이 진보 신문보다 러시아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신문은 조선일보(총 8,234건, 22.7%) 그리고 동아일보(총 5,086건, 22.6%) 순으로 나타났고, 진보 신문은 경향신문(5,341건, 23.8%) 그리고 한겨레(총 3,767건 23.8%) 순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기사들의 본문에서 빅카인즈를 활용해 가중치와 언급 횟수를 바탕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했으며 결과는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으며 그림 3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3> 국내 신문 러시아 관련 보도의 워드 클라우드



출처: 빅카인즈(n.d.)에서 필자 제작

전반적으로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은 주요 키워드는 대부분 서로 유

사하게 나타났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 중국,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19와 관련된 키워드는 유사한 결괏값을 내었다. 하지만,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은 각자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그들만의 독특한 키워드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보수신문의 경우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소련’이나 KGB의 현 모습인 ‘FSB’ 같은 경우는 진보 신문에서 찾기 어려운 키워드로 나타났다. 진보 신문과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 IOC, 부산항이 진보 신문에서만 확인 가능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키워드는 2018년 6월에 러시아 하원인 두마에서 첫 연설을 진행한 사건을 통해 키워드가 나타났다(경향신문 2018/06/22; 한겨레 2018/06/22). IOC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에서 러시아가 지난 소치올림픽 당시 도핑 사건으로 인해 국가 단위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 후 IOC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회원자격을 회복된 이슈가 관련 키워드로 떠올랐다(한국일보 2018/02/28). 마지막으로 부산항의 경우 부산항으로 들어오던 러시아 선원들이 2020년 초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을 받은 사건이 발단되었다(조선일보 2020/06/24). 보수 신문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냉전 시대의 모습이 국가이미지 속에 주요키워드로 자리 잡았고, 진보 신문과 같은 경우에 현(現) 정부와의 협력과 관계된 키워드와 러시아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키워드들이 주로 나타났다.

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지금까지 국내 중앙지에서 한·러 전략적 동반자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20년 까지 총 12개년 동안 출간했던 러시아 관련 기사를 빅카인즈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키워드 네트워크, 그래프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의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1기에서는 주로 크림반도사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수집된 데이터에서 가시성이 가장 뛰어났으며, 가중치도 높게 나타났다. 2기에서는 주로 트럼프 전(前)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수집

된 데이터에서 가시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의 일환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러시아를 거시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살펴본 관계로, 언론보도의 심층적 보도에는 다소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언론의 러시아 보도 패턴과 국가 이미지 변천과정을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이나 담론 분석을 통해 언론 보도의 질적 내용을 심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빅데이터 방법론을 다양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칫하면 방법론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내 러시아 관련 보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신문은 주로 러시아 관련 이슈를 통상적으로 국제 이슈로 치부한다. 둘째, 국제 이슈를 제외하고 한국 신문은 주로 러시아의 정치적 이슈 보도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편이다. 특히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의 연관 관계가 주요 보도 주제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의 언론매체는 진보와 보수의 성향에 따라 러시아를 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신문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나타났으며, 진보성향의 신문은 러시아를 보수신문처럼 과거에 근거하여 인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수신문이 진보신문보다 러시아 관련 보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북방 정책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격차를 키울 가능성이 커, 국민들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 결국 정책 수행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미지 이론에 근거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밀접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양립가능성(goal compatibility)’ 즉 양국이 갈등상황이 아닌 협력 상황에 놓여 있다고 사료 된다. 둘째, 키워드 네트워크와 그래프 결과를 통해 러시아는 전(前)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나란히 다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대적 국력’은 한국보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측면에서 강한 국가의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문화적 지위는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언론매체는 러시아를 미국과 견주는 '제국'의 이미지로 비추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신(新) 북방정책에 근거해 볼 때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한국 정부와 대중 사회 간 러시아에 대한 인지불일치 현상이 확인 되었고, 이는 향후 대(對)러시아 정책 설정에 방해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국내 신문은 러시아의 정치·외교적인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러시아를 제국이나 강대국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지는 않았다. 둘째, 국내 언론보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향후 연구에서 지속적인 한국 언론이 국제사회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추적관찰이 가능해졌고, 또한 한국 대중의 국제사회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셋째, 한·러 관계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미지를 다각도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국의 필요한 협력분야를 선제적으로 탐색하여 상생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후속 연구에서도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기연. 2020. “미 대선 개입용 러시아 댓글부대 가짜 계정 적발.” 『세계일보』 (9월 2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02513437> (최종검색일: 2021/07/12).
- 김덕주. 2019. “한·러 관계의 평가 및 전망: 한·러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575&clCode=P03&menuCl=P03> (최종검색일: 2021/09/09).
- 김민서. 2020. 세계일보, “전·현 FBI 국장 ”러시아 선거개입“...러시아는 트럼프를 원한다?” 『세계일보』 (9월 20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18522440> (최종검색일: 2021/07/12).
- 김보협. 2018a. “문 대통령-푸틴 ”한반도와 유라시아 함께 번영 누리자.” 『한겨레』 (6월 22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0293.html> (최종검색일: 2021/09/12).
- 김보협. 2018b. “한국인 서재엔...” 문 대통령, 러시아 기립박수 부른 ‘인문학 연설’.” 『한겨레』 (6월 22일) 입력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0201.html> (최종검색일: 2021/09/12).
- 김유진. 2008. “무기력한 미국·유럽...러 외교·경제 압박수단 없어.” 『경향신문』 (8월 12일)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0808121804395> (최종검색일: 2021/09/15).
- 김혜수. 2018. “트럼프, ”세계평화·안보 위해 러시아의 협력필요하다.” 『국민일보』 (6월 29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83789&code=61131111&cp=kd> (최종검색일: 2021/09/15).
- 강봉구. 2009. “한국에서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3호, 299-326.
- 민경하·김세일. 2019. “한국 대학생들의 러시아 국가이미지 연구.” 『외국학연구』 제47호, 299-326.
- 박기수.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3개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 55권 4호, 5-26.
- 박주영. 2020a. “감천항 러시아 선원, 접촉자 더 많을 수도...61명 늘어.” 『조선일보』 (6월 24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3494.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최종검색일: 2021/09/15).
- 박주영. 2020b. “3시간만에 접촉자 211명→164명으로 바뀌어...감천항 '러시아 코로나' 방역, 뒤죽박죽.” 『조선일보』 (6월 24일) 입력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3968.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최종검색일: 2021/09/15).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4권 4호, 40-85.
- 방교영. 2011. “러시아 국가 이미지에 관한 연구: 20~30대 한국 여성을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27권 4호, 97-123.
- 방교영. 2012.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에 관한 연구 II - 기호구성체로서의 국가 이미지.” 『기호학 연구』 32호, 147-174.
- 빅카인즈. n.d. “빅카인즈 소개.” <https://www.bigkinds.or.kr/v2/intro/index.do> (최종검색일: 2021/06/21).
- 석경민. 2020. “임기 한달 남긴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관련자 측근 무더기 사면.” 『중앙일보』 (12월23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953275> (최종검색일: 2021/07/12).
- 손제민. 2018a. “문 대통령·푸틴, 철도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의지 확인.” 『경향신문』 (6월 22일),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806222254005> (최종검색일: 2021/09/15).
- 손제민. 2018b. “문 대통령, 러 하원 첫 연설 ”시베리아철도, 부산까지 다다르길.” 『경향신문』 (6월 22일)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1806220200015>(최종검색일: 2021/09/15).
- 송태화. 2018. 국민일보, “김정은, 북미회담 중 러시아에 독립기념일 축전 ”북러 관계 강화.” 『국민일보』 (6월 12일) <http://news.kmib.co.kr/a>

- rticle/view.asp?arcid=0012434441&code=61111611&cp=kd
(최종검색일: 2021/09/15).
- 신범식. 2019. “러시아 외교안보정책과 한러관계 2030.” 『신아세아』 제 26권 제 3호, 134-172.
- 안현우. 2018. “IOC, 러시아올림픽위원회 회원 자격 회복.” 『한국일보』 (2월 28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282346508588> (최종검색일: 2021/07/12).
- 온라인뉴스부. 2014. “크림자치공화국 합병 서명...푸틴 속도전에 손 못 쓰는 EU.” 『서울신문』 (3월 19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19500072> (최종검색일: 2021/09/15).
- 온라인뉴스부. 2018. “트럼프·푸틴,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서 정상회담.” 『서울신문』 (6월 29일) 입력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9500152> (최종검색일: 2021/09/15).
- 유태영. 2014. “러시아 병력철수 시작... 우크라 사태 변화 촉각.” 『세계일보』 (3월 31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140331005718> (최종검색일: 2021/09/15).
- 이경민. 2019. “2년에 걸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 타임라인.” 『조선일보』 (4월 19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9/2019041901513.html (최종검색일: 2021/09/15).
- 이병종. 2012. “국제언론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연구: 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제 16권 제 3호, 62-97.
- 이옥진. 2020. “트럼프, 측근 프린 전격 사면 논란...러시아 미대선 개입 의혹 키맨” 『조선일보』 (11월 26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0/11/26/VLTMIQ75DRBWBFSPUAAAYJZNM6I/?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최종검색일: 2021/07/12).
- 이운태. 2019. “美 법무장관, 18일 ‘러시아 스캔들’ 특검보고서 공개...백악관 사전검열 있었나?” 『동아일보』 (4월 18일) 입력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18/95123604/1>(최종검색일: 2021/09/15).
- 전승훈. 2014a. 美 “크림반도 합병말라”... 러 “핵무기 감축 중단할수도”

- 『동아일보』 (3월 10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310/61562228/1> (최종검색일: 2021/09/15).
- 전승훈. 2014b. “러 합병 찬성 70~80% 예상… 러, 우크라 동부까지 軍 투입.” 『동아일보』 (3월 17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317/61765401/1> (최종검색일: 2021/09/15).
- 전승훈. 2014c. “오바마-푸틴 “우크라사태 외교적 해결 합의.” 『동아일보』 (3월 31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331/62125854/1> (최종검색일: 2021/09/15).
- 조성렬. 20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러 정상회담, 포괄적 경제·안보 협력의 길 열다.”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51922> (최종검색일: 2021/09/15).
- 최양호·김봉철. 2005. “한국의 신문사설에 나타난 러시아 이미지 분석-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학』 제7권 제2호, 473-498.
- 최우익. 2017. “2016~17년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러 국민인식의 변화.” 『러시아연구』 제27권 제2호, 227-254.
- 청와대. n.d.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944> (최종검색일: 2021/06/20).
- Boulding, Kenneth Ewart. 1956. *The Image ;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Entman, Robert. 2003. “Cascading Activation: Contesting the White House’s Frame After 9/11.” *Political Communication* Vol. 20, no. 4, 415-432.
- Herrmann, Richard and Michael Fischerkeller. 1995.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3, 415-450.
- Mermin, Jonathan. 1999. *Debating War and Peace: Media Coverage of US Intervention in the Post-Vietnam Er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varajah, Uthayasankar, Muhammad Mustafa Kamal, Zahir Irani

and Vishanth Weerakkody 2017. "Critical Analysis of Big Data Challenged and Analytical Method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no. 70. 263-286.

투고일 : 2021년 10월 29일 . 심사일 : 2021년 11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6일

*정세원은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에서 유럽지역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EU Perceptions from Korean YouTube videos before and after the Brexit Referendum: A Semantic Network Analysis Approach'가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빅데이터와 유럽연구: 사회 및 의미연결망 분석 사례를 통한 융합연구의 가능성 고찰'등 다수가 있다.

<Abstract>

Examining National Image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South Korean Media : A Big Data Content Analysis Approach

CHUNG, Sae W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South Korean media (11 major daily media) coverage on the Russian Federation from 2008 to 2020.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for this study was the big data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uggest the sources of the national image or percep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poses three major findings. First, the Russian Federation was depicted as a hostile global actor. Second, the conservative media was more inclined to describe the Russian Federation negatively. Finally, the media representation did not correspond with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To overcome such hindrance, this study suggests the media's in-depth coverage of Russia, and the government's effort to examine South Korea's perceptions of Russia and to facilitate closer cooperation with Russia.

Keywords : Russia, Big Data, Image theory in IR Context, Perceptions of the Global Society and International News